

ISSUE PAPER

2023 VOL.

01

통일법제 이슈페이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관점에서 본 그린데탕트 협력 구상: 추진 여건과 법·제도적 과제

모 춘 흥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교수



ISSUE PAPER

통일법제 이슈페이퍼

2023 VOL. 01



통일법제 이슈페이퍼

2023 VOL. 0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관점에서 본 그린데탕트 협력 구상: 추진 여건과 법·제도적 과제

모 춘 흥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교수

차례

Contents

I	들어가며	6
II	그린데탕트 구현을 위한 북한의 대내적 여건	10
	1. '사회주의문명국' 건설 의지	10
	2. 환경·자연재난 발생 현황	12
	3.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대응 역량 강화 의지	19
III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북한	24
	1.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24
	2. 북한 환경분야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추진을 위한 과제	32
IV	북한의 지속가능한 환경·재난 대응 현황과 역량	36
	1. 북한의 지속가능한 환경·재난 대응의 현황	36
	2. 북한의 지속가능한 환경·재난 대응을 위한 역량	38
V	남북 그린데탕트 협력 구상의 추진전략과 법·제도적 과제	42
	1. 남북 그린데탕트 협력 구상의 추진전략	42
	2. 남북 그린데탕트 협력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46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관점에서 본 그린데탕트 협력 구상:
추진 여건과 법·제도적 과제



들어가며

ISSUE PAPER
통일법제 이슈페이퍼

I

들어가며

»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그린데탕트(Green Detente, 녹색 화해협력) 협력 구상은 환경·재난 분야의 협력을 통해 남북이 당면한 갈등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환경과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평화구축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음

-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으로 '남북 그린데탕트 협력 구상'을 제시함
- 윤석열 정부는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을 위해 미세먼지·자연재난 공동대응 등 환경협력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세부과제로 산림·농업·수자원 분야 협력 강화와 DMZ 그린평화지대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¹⁾
- 윤석열 정부의 그린데탕트 협력 구상은 남북 간 갈등의 평화적 전환을 위해 환경 및 생태협력을 활용하고자 했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것임

» 그린데탕트 협력 구상은 전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반도 차원의 노력이면서 동시에 환경 및 생태 분야와 같은 비전통 안보영역의 협력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평화구상임

- 파리기후변화협약 채택 이후, 2023년 현재 모든 국가들은 자국의 상황을 반영하여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전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21년 9월 24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여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같은 해 10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탄소중립기본법」의 입법 취지와 국제 동향, 국내 여건 등을 고려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마련함²⁾
- 김정은 집권 초부터 북한은 '사회주의문명국 건설'을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핵심목표로 제시하는 가운데, 인민생활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환경문제와 자연재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오고 있음

1) 대한민국정부,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p. 158.

2) 관계부처 합동,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2021년 10월 18일.

- 북한은 2014년 인민들의 생명안전과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공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을 제정하고, 2019년 「센다이 프레임워크(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등 국제적 합의에 맞춰 자체적인 「2019-2030 국가재해위험감소전략」을 수립함³⁾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북한의 대응과 그린데탕트 협력 전개

- 북한은 국가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정책적 판단에 기초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적극 이행하고 있음
- 특히 북한은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갖추기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해오고 있음. 대표적으로 2019년 8월 북한은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유엔 산하 녹색기후기금(Global Climate Fund, GCF)에 금융 지원을 신청했으며, 녹색기후기금은 같은 해 12월 13일 처음으로 752,090달러의 펀드를 지원해줌.⁴⁾ 또한 북한은 2021년 7월 '자발적 국적리뷰(Voluntary National Review, 이하 VNR)' 보고서를 제출하여 환경보호, 기후변화 대응 등 장기적 국가계획을 수립, 공표함⁵⁾
-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북한의 적극적인 태도를 고려하면, 북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과 그린데탕트 협력 구상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에 본고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남북 관계발전을 위한 그린데탕트 구현을 위한 전략을 구체화하기에 앞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환경협력을 위한 북한의 여건과 법·제도적 과제를 살펴봄

3) 이해정·강성현,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을 위한 실천 과제,” 『현안과 과제』 22-04, (2022), p. 4.

4) GCF, “Readiness proposal with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FAO) for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3 December 2019), p. 4. <https://www.greenclimate.fund/sites/default/files/document/readiness-proposals-democratic-republic-korea-fao-nda-strengthening-country-programming.pdf>.

5) 김태경, “그린 데탕트: 환경협력을 통한 평화구축의 미래 탐색,” 『국제전략 Foresight』 9호, (2022), p. 7.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관점에서 본 그린데탕트 협력 구상:
추진 여건과 법·제도적 과제



II

**그린데탕트 구현을 위한
북한의 대내적 여건**

ISSUE PAPER

통일법제 이슈페이퍼

II

그린데탕트 구현을 위한 북한의 대내적 여건

1. ‘사회주의문명국’ 건설 의지⁶⁾

» 북한이 2012년 신년사에서 제시한 사회주의문명국 건설은 김정은 시대의 국가발전 목표로 이해할 수 있음

- 김정은은 2012년 신년사에서 “우리 조국을 발전된 사회주의문명국으로 빛내여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문명을 따라 앞서자는 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의 의지였고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이라고 말함⁷⁾

- 사회주의문명국 건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김정은이 2012년 4월 6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에서 제시됐는데, 동 담화에서 김정은은 “교육, 보건, 문학예술, 체육을 비롯한 문화건설의 모든 부문에서도 끊임없는 혁명적 전환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발전된 사회주의문명국으로 빛내여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실천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교육 사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늘이고 교육의 현대화를 실현하며 중등일반교육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대학교육을 강화하여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떠메고나갈 세계적 수준의 재능 있는 과학기술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시대적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보급하며 체육을 대중화하고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들이 고상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문화의 창조자, 향유자가 되게 하며 온 사회에 희열과 광만이 차 넘치게 하여야 합니다.”⁸⁾

6) 본고에서는 그린데탕트 협력 구상의 법적 기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음. 관련 내용은 한국법제연구원의 다음의 연구를 참고할 것. 류지성·최현아, “남북 관계발전을 위한 그린 데탕트, 정책적·법적 협력 방향,” 『통일법제 이슈페이퍼』 Vol. 10, (2022), pp. 28-45.

7)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스런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로동신문』 2012년 1월 1일.

8) 김정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우리민족끼리』 2012년 4월 6일.

- 북한 체제의 새로운 지향점으로 사회주의문명국 건설이 제시된 이후, 사회주의문명국 건설은 당의 최고강령이자 새로운 혁명과업으로 받아들여지게 됐는데, 이에 대해 북한은 2012년 12월 2일자 로동신문에서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위업을 계승해나가는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맡겨진 가장 성스럽고 중대한 혁명과업”이라고 말함⁹⁾
- 이렇듯 김정은은 김정일 시대부터 목표로 했던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사회주의문명국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 보건, 문학예술, 체육, 도덕을 비롯한 모든 문화 분야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음
- 김정은은 새로운 북한사회의 지향점을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과 같은 이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인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여타 선진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국가, 즉 사회주의문명국으로 규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¹⁰⁾
- 이와 관련하여, 한은경은 사회주의문명국을 세우는 것을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중요한 목표의 하나”로 보고, 이를 위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¹¹⁾
- 김정은은 2013년 1월 1일 직접 발표한 신년사에서 자신이 건설하고자 하는 “사회주의 강성국가는 전체 인민이 높은 문화지식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고 가장 문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 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며 온 사회에 아름답고 건전한 생활기풍이 차 넘치는 사회주의문명국”이라고 말함¹²⁾
- 김정은은 36년 만에 개최한 2016년 5월 조선로동당 제7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사회주의문명국 건설을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중요한 목표로 제시하면서, 북한이 세우고자 하는 사회주의문명강국은 “사회주의 문화가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하는 나라, 인민들이 높은 창조력과 문화수준을 지니고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창조하고 향유하는 나라”라고 말함¹³⁾

» 북한은 사회주의문명국의 핵심으로서의 인민들의 위생문화적인 생활조건과 환경조성을 하는 문제에 높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음

- 한은경은 사회주의문명국 건설에 있어서 인민들의 위생문화적인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회주의문명국은 “당의 예방의학적 방침이 철저히 관철되어 병 걸린률이 극력 낮아지고 의료봉사의 질과 의과학기술이 발전하여 인구의 평균수명과 전염병 예방률을 비롯한 보건지표들이 세계 선진수준에 올라선 나라”이며, 이때 “위생문화적인 생활조건과 환경은 보건분야에서 문명강국이 갖추어야 할 징표의 하나”라는 점

9) “우리의 사회과학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로동신문』 2012년 12월 2일.

10) 모춘흥, “김정은 시대 북한 ‘과학기술 중시 정책’과 남북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 『2020 STEPI Fellowship』 (2020), pp. 8-9.

11) 한은경, “문명강국의 징표,” 『김일성종합대학(철학, 경제학)』 제64권 제1호, (2018), p. 29.

12) 김정은, “2013년 신년사,” 『로동신문』 2013년 1월 1일.

13)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한 당중앙위원회 사업 총화보고,” 『로동신문』 2016년 5월 8일.

을 강조함¹⁴⁾

- 김정은은 위생문화적인 생활조건과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북한의 산림생태계를 복원하고 열악한 환경·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기후변화 대응과 자연재해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특히 김정은은 산림생태계 복원과 첨단기술 산업을 지식경제의 기둥으로 보고, 이러한 분야를 국가차원에서 대대적 지원과 육성할 것임을 강조함¹⁵⁾

- 말하자면, 김정은 시대 북한은 여타 선진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먹고 사는 것과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것과 관련된 위생문화적인 생활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¹⁶⁾

» 이상에서 볼 때, 사회주의문명국 건설은 김정은 시대의 서막을 올리는 새로운 시대적 과제이자 새로운 주체 100년을 지탱하는 국가발전 목표로 이해할 수 있음¹⁷⁾

- 전영선은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사회주의문명국’이란 곧 새로운 시대가 만들어 나갈 국가의 구체적인 모습”이며, 그 모습이 정상국가로서의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고 평가함¹⁸⁾

2. 환경·자연재난 발생 현황

» 사회주의문명국 건설의 제약조건으로서의 북한의 환경재난 상황

- 북한의 환경재난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산림현황을 보면, 2021년 기준, 북한의 산림면적은 4.98Mha로 추정됨. 2010년 기준, 북한은 전 국토의 41%에 해당하는 약 5Mha의 산림면적을 갖고 있었으나, 지난 20년간 산림면적의 약 5%에 해당하는 262Kha가 소실됐음(그림 1) 참조

14) 한은경, “문명강국의 징표,” 『김일성종합대학(철학, 경제학)』 제64권 제1호, (2018), p. 30.

15) 리혁, “과학자, 기술자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할데 대한 사상의 본질,”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 경제학)』 제64권 제3호, (2018), p. 15.

16) 모춘흥·정병화, “북한과의 공생, 그 (불)가능성: 식량문제와 보건으로 실태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제9권 제1호, (2019), p. 142.

17) 모춘흥, “북한의 ‘사회주의문명국 건설’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보건의로 분야를 중심으로,” 『문화와 정치』 제8권 제1호, (2021), p. 47.

18) 전영선, “사회주의 미풍양속과 ‘준법기풍’을 통해 본 북한의 문화 검열,” 『통일인문학』 제84집, (2020), pp. 47-51.

<그림 1> 북한의 산림현황



출처: Global Forest Watch(검색일: 2023년 3월 17일), <https://www.globalforestwatch.org>.

- 북한에서 산림이 황폐화되는 원인은 식량, 에너지, 원자재 등의 부족을 주민들이 주변 산림으로부터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함. 특히 식량과 난방을 위한 산림의 과도한 이용은 산림의 물 공급, 토사 유출 방지, 목재·연료 공급 등의 기능을 약화시켜, 물·식량·에너지 상황이 악화되는 ‘빈곤의 늪(poverty trap)’을 초래하고 있음¹⁹⁾
- 북한 산림 황폐화의 원인 중 하나인 식량 부족은 인도주의적 차원의 문제이며, 기후변화 측면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지구적 차원의 노력에 역행하는 것임
- 북한 산림 황폐화는 김정은의 사회주의문명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이에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산림복구에 힘을 쏟고 있음
- 김정은은 “산림은 나라의 귀중한 자원이며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재부”임을 천명하는 가운데,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자》, 《현대적인 양묘장들을 건설하여 산림복구전투를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말함
- 특히 김정은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체취가 뜨겁게 스며여있는 이 땅,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의 뜻이 더욱 맥맥히 높뛰어야 할 조국의 산들이기에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산림복구사업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이며 수령님들의 숭고한 염원을 빛나게 실현하는 위업이라는 것을 천만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주시었다”고 말한 바 있음²⁰⁾

19) “황폐화된 북한 산림, 한국이 국제협력력을 통해 복구 주도해야,” 『중앙일보』 2020년 10월 13일.

20) “주체조선의 진군을 막을 힘 세상에 없다,” 『로동신문』 2022년 11월 10일.

- 2022년 10월 26일 북한은 김일성이 1952년 “미제의 야수적인 폭격으로 파괴된 산림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복구할 데 대한 교시”를 내린 역사적인 날인 3월 14일을 새로운 식수절로 정했고, 이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090호 주체111(2022)년 10월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식수절을 정함에 대하여”를 폐지했음²¹⁾
- 북한은 식수절 날짜를 기존 3월 2일에서 3월 14일로 바꾼 뒤 맞는 첫해인 2023년 식수절을 맞이하여, 노동신문에 “식수는 단순히 나무를 심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 당의 정책을 심고 뜨거운 애국심을 심으며 영원히 변색없을 순결한 양심을 심는 사업”²²⁾이라고 말하는 가운데, “모두 다 열렬한 충성과 애국의 한마음을 안고 만년대계의 사업인 나무심기에 성실한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 조국산천을 더욱 푸르게 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자”라고 말했음

<그림 2> 식수절을 맞이하여 나무심기 강조



◇ 출처: 『조선중앙통신』, 2023년 3월 15일.

» 북한의 산림복구를 위한 남북협력

- 위의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북한의 황폐해진 산림은 복구해야 할 규모가 광범하고, 산림 황폐화의 원인이 북한의 사회경제적인 요인과 연결되어 있어서 북한이 자체적으로 극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²³⁾
- 2018년 남북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방안으로 벌목이나 개간으로 황폐화된 북한 산림에 대한 대책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산림협력 분과회담을 개최하기도 했음
- 구체적으로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2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090호 주체111(2022)년 10월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식수절을 정함에 대하여,” 『로동신문』, 2022년 10월 26일.

22) “오늘은 식수절이다, 나무와 함께 당 정책을 심고 애국심을 심고 양심을 심자,” 『로동신문』, 2023년 3월 14일.

23) 김재기·양용환, “남북한 산림 분야 교류 협력 성과와 협력 과제,” 『한국과 국제사회』 제6권 1호, (2022), p. 256.

-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는 데에 합의함²⁴⁾
- 2018년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과 관련하여, 김정은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하여서는 민족공동의 합의를 존중하고 일관되게 리행해 나가야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동 선언들에는 “민족적 화해와 단합, 평화와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원칙과 방도를 명확히 밝혀주고 있는 민족공동의 대강이다. 선언들에는 북남관계의 획기적인 발전과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제반 문제들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함²⁵⁾
 - 위에서 언급한 2018년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진행된 두 차례의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에서 산림협력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의하기로 합의함
 - 구체적으로 남북은 7월 4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된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에서 “양묘장 현대화, 임농복합경영, 산불방지 공동대응, 사방사업 등 산림 조성과 보호”,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 조성과 보호 부문에서 이룩된 과학기술 성과들의 교류를 비롯하여 산림과학기술 분야”, “남북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기구 조직과 회담에서 합의된 사항들을 이행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문서교환”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의하기로 합의함²⁶⁾
 - 10월 2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개최된 제2차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에서 남북은 “소나무재선충을 비롯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및 예방대책”, “양묘장 현대화 사업”, “산불방지 공동대응, 사방사업 등 자연생태계 보호 및 복원 및 산림과학기술 공동토론회 개최”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의하기로 합의함²⁷⁾
 - 2018년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개최된 남북산림분야 분과회담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2019년 제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이행되지 못함
- » 북한은 산림분야 복구 및 개선에 대한 관심과 함께 매년 식량수급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연재난 발생문제에도 관심이 큼
- 북한의 홍수와 가뭄과 같은 자연재난 상황이 북한(인민)에 미치는 피해와 영향의 수준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김정은의 관심도 더욱 커지고 있음
 - 빈번한 자연재난 상황은 북한의 식량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요인으로 기능하고 있고, 북한은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김정은은 2021년 8월 초 함경남도 일대에 많은 비가 쏟아져 주민 5천 명이 긴급 대피하고 주택과 농경지가 침

24) “9월 평양공동선언 전문,”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남북합의서 공동보도문. 2018년 9월 19일

25) “자주통일시대의 전진을 추동하는 민족공동의 강령,” 『로동신문』 2018년 10월 23일.

26)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 공동보도문,”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남북합의서 공동보도문. 2018년 7월 4일.

27)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 공동보도문,”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남북합의서 공동보도문. 2018년 10월 22일.

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자, 8월 5일 폭우와 큰물에 의한 피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함경남도당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함경남도안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와 큰물에 의해 발생한 피해상황을 료해하고 공병부대들로 피해지역의 파괴된 도로들을 시급히 복구하며 도에 주둔하고 있는 인민군부대들을 함경남도당군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동원시켜 도의 역량과 협동 밑에 피해복구를 다그쳐 끝낼 데 대한 지시를 하달”함. 당시 김 위원장은 “피해복구용 주요자재를 국가예비분에서 해제하여 긴급보장하도록 대책하시면서 중앙에서 재정 물질적으로 함경남도 피해복구사업을 강력히 지원할 것”을 명함²⁸⁾

- 국가차원의 자연재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30년간 태풍, 홍수, 호우, 강풍, 가뭄 등 매년 자연재난이 잇따르고 있음
- 한국환경연구원이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20년까지 북한에서 발생한 자연재난은 총 272건이며, 태풍과 홍수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과 같은 동시에 발생한 재난 건수는 88건임. 특히 최근 30년간 북한의 월별 자연재난 발생현황을 보면, 연중 대부분 시기에 걸쳐 각종 자연재난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1〉)

<표 1> 최근 30년간 월별 자연재난 발생현황(1991-2020년)

(단위: 회)

연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 활동	한파	폭염	붕괴· 낙석	총계 (동시발생)
1월	0	0	0	0	0	0	2	0	4	0	0	0	0	0	5	0	0	11
2월	0	0	0	0	0	0	1	0	2	0	1	0	0	0	2	1	0	7
3월	0	0	0	0	0	0	0	0	4	1	13	0	0	0	0	0	1	19
4월	0	0	0	2	0	1	0	0	6	3	14	0	0	0	0	0	0	26
5월	0	0	0	0	0	0	0	0	7	2	11	0	0	0	0	1	0	21
6월	1	0	4	3	0	4	0	0	7	1	0	0	0	0	0	1	1	22(8)
7월	7	16	24	3	0	0	0	0	1	0	0	0	0	0	0	3	7	61(30)
8월	12	17	26	7	0	4	0	0	2	0	0	0	0	0	0	0	5	73(36)
9월	6	4	10	3	0	2	0	0	1	2	0	0	0	0	0	0	1	29(9)
10월	1	3	4	3	0	2	0	0	0	1	0	0	0	0	1	0	1	16(8)
11월	0	0	0	0	0	0	0	0	0	2	1	0	0	0	0	0	0	3
12월	0	0	0	1	0	0	1	0	0	2	0	0	0	0	3	0	0	7
총계	27	40	68	22	0	13	4	0	34	14	40	0	0	0	11	6	16	295 (91)

주1) 지속되거나 두 달에 걸쳐 발생한 자연재난의 경우, 최초 발생 건수를 기준으로 1건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월별 발생 건수와 연도별 발생 건수가 다를 수 있음

주2) 지진의 경우 기상청의 긴급재난 구분 기준인 규모 3.5 이상 지진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함

주3) 해상에서 발생한 지진의 경우 행정구역이 명확히 확인된 지진만 조사에 포함함

◆ 출처: 강택구 외, 『북한 자연재해 자료 구축과 협력 전략』, (세종: 한국환경연구원, 2021), p. 12.

28)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함경남도당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긴급소집할데 대하여 지시,” 『로동신문』 2021년 8월 8일.

- 북한의 각 지역별 재난 발생현황의 지역별·유형별 편차가 존재하며(〈표 2〉), 그에 따라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의 편차가 지역별로 크게 나타남

<표 2> 최근 30년간 월별 자연재난 발생현황(1991-2020년)

(단위: 회)

유형 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 활동	한파	폭염	붕괴· 낙석	총계 (동시발생)
평양	5	7	15	5	0	0	3	0	3	1	5	0	0	0	0	0	5	49(20)
나선	3	3	3	1	0	0	0	0	0	0	0	0	0	0	0	0	1	11(7)
남포	1	4	4	3	0	0	0	0	3	0	2	0	0	0	0	1	2	20(8)
평남	8	18	29	7	0	4	0	0	5	0	5	0	0	0	0	0	10	86(42)
평북	7	12	18	4	0	0	0	0	3	0	4	0	0	0	0	1	3	52(22)
함남	8	19	24	6	0	1	0	0	2	3	2	0	0	0	0	0	9	74(35)
함북	7	8	12	3	0	1	0	0	1	0	1	0	0	0	0	2	1	36(13)
황남	13	16	31	9	0	4	2	0	9	1	5	0	0	0	0	1	6	97(42)
황북	12	16	31	9	0	0	0	0	8	3	4	0	0	0	0	1	10	94(45)
강원	16	19	35	12	0	4	3	0	3	5	1	0	0	0	0	0	9	107(30)
자강	2	3	4	1	0	0	0	0	0	1	4	0	0	0	0	0	0	15(4)
양강	2	3	4	2	0	0	0	0	0	0	3	0	0	0	1	3	3	21(7)
전역	3	3	2	1	0	1	0	0	8	0	30	0	0	0	6	0	0	54(2)
기타	0	1	1	1	0	2	0	0	0	0	1	0	0	0	0	0	0	6(2)
총계	87	132	213	64	0	17	8	0	45	14	67	0	0	0	7	9	59	722(299)

주1) 지속되거나 두 달에 걸쳐 발생한 자연재난의 경우, 최초 발생 건수를 기준으로 1건으로 처리하였음

주2) 기타의 경우(동해안, 서해안) 등을 포함하여, 해상에서 발생한 지진의 경우 행정구역이 명확히 확인된 지진만 조사에 포함함

주3) 지진의 경우 기상청의 긴급재난 구분 기준인 규모 3.5 이상 지진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함

◇ 출처: 강택구 외, 『북한 자연재해 자료 구축과 협력 전략』 (세종: 한국환경연구원, 2021), p.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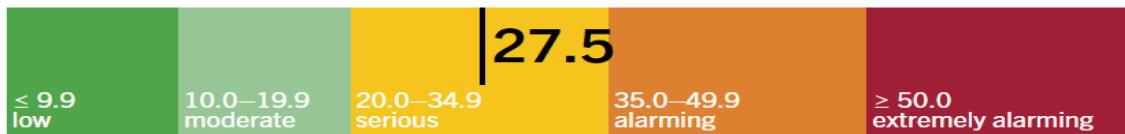
» 잇따르는 환경·재난은 북한의 식량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그로 인해 여성, 영유아 및 아동의 건강 영양문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침

- 많은 전문가들이 수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대북제재의 장기화, 코로나19,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식량 상황을 포함한 북한의 인도적 상황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데 있음
- 유엔북한팀이 발간한 「2020 북한의 인도주의 필요와 우선순위」에 따르면, 북한 인구의 40%에 해당하는 1,01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식량 불안정성을 겪고 있고 시급한 식량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만성적 영양실조율은 2012년 28%에서 2017년 19%로 다소 줄어들었지만, 지역 간 격차가 매우 심하며 5세 미만 아동 중 3%는 급성 영양실조를 앓고 있음
- 안전한 식수와 개인 및 공공위생 서비스에 대한 접근 문제 또한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며, 특히 식수와 위생 서비

스 부분의 경우 도농간 격차와 도간 격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남. 이를테면 도시지역에서 오염된 물을 마시는 인구는 10%인데 반해, 농어촌 지역은 45%에 달하며, 함경북도에서는 5명 중 4명이 안전하게 관리된 식수에 접근 가능하지만 황해남도에서는 도민의 절반만이 안전하게 관리된 식수에 접근 가능함

- 낮은 위생시설 접근성이 건강의 위협을 높이고 있는데, 위생시설이 없는 집단에서의 만성 영양실조 발생률이 적절하게 관리된 위생시설을 이용하는 집단에 비해 40% 높으며, 개선되지 않은 위생시설을 이용하는 5세 미만 아동의 설사병 발생률은 위생시설을 이용하는 5세 미만 아동에 비해 36%나 높은 것으로 나타남²⁹⁾
-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 불안정성의 문제는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영양상태로 이어짐. 2020년 '세계기아지수(Global Hunger Index)'에 따르면, 북한은 107개 나라 중에서 96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2020 세계기아지수: 북한



출처: <https://www.globalhungerindex.org/north-korea.html>

-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은 2000년 39.5점인 경고(alarming)단계에서 2020년 27.5점으로 심각성이 점진적으로 해소되고 있지만, 여전히 심각(serious)단계에 머물러 있음
- 불안정한 식량문제와 관리되지 못한 식수와 위생시설은 북한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된 요인임. 유엔북한팀이 발간한 「2020 북한의 인도주의 필요와 우선순위」에 따르면, 영양상태의 측면에서 5세 미만 아동 10명 중 1명은 저체중, 5명 중 1명은 만성 영양실조를 갖고 있음
- 영양실조의 주된 원인으로는 가정의 식량안정성과 부족한 수유, 보살핌, 양질의 보건, 식수위생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족 때문이며, 특히 아동의 영양상태는 도별/도농간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³⁰⁾
- 현재 건강수준의 측면에서 북한 주민의 평균수명은 72.6세로 평균수명이 83.3세인 남한 주민보다 10년 이상 낮으며,³¹⁾ 영아사망률 역시 북한은 출생 1천명 당 13명으로 남한의 3명에 비해 약 4배 이상 높은 수준임³²⁾

29) "2019 DPR Korea: Needs and Priorities," Produced by the Humanitarian Country Team and Partners. https://dprkorea.un.org/sites/default/files/2020-04/2020_DPRK_Needs_and-Priorities_Plan.pdf.

30) "2019 DPR Korea: Needs and Priorities," Produced by the Humanitarian Country Team and Partners. https://dprkorea.un.org/sites/default/files/2020-04/2020_DPRK_Needs_and-Priorities_Plan.pdf.

31) "World Health Statistics 2021: Monitoring Health for the SDGs," Produced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https://apps.who.int/iris/bitstream/handle/10665/342703/9789240027053-eng.pdf?sequence=1&isAllowed=y>.

32) "Level & Trends in Child Mortality Report 2020," Produced by the UN Inter-agency Group for Child Mortality Estimation. <https://www.unicef.org/media/79371/file/UN-IGME-child-mortality-report-2020.pdf>.

- 모성사망비 역시 북한은 출생 10만명 당 89명으로 남한의 11명에 비해 약 8배 이상 높은 사망수준을 보이고 있음³³⁾
- 북한의 열악한 영양상태는 악순환의 사이클을 형성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 모성의 열악한 영양 및 건강상태가 태아와 영유아기의 영양박탈은 물론 성인기 이후의 전반적인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으며, 그동안 후천성 환경과 생활습관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비감염성 질환 또한 태아와 영유아기의 영양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에서 발행한 「세계 영양 보고서 2020」만 보더라도, 북한의 영양 지표수준은 세계 각국의 최신 영양 지표들과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한 것은 물론, 남한의 영양 지표수준과 비교해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³⁴⁾

3.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대응 역량 강화 의지

» 파리기후변화협약 채택 이후 대다수 국가들이 전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점에서는 북한도 예외는 아님

- 북한은 '기후변화가 몰아오는 심각한 위기'라는 제목의 로동신문 사설에서 “온실가스방출량을 결정적으로 줄 이자면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달라붙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는 북한 역시 기후변화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줌³⁵⁾
- 사실 북한은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으며, 그 일환으로 북한은 1994년 12월 유엔 기후변화협약을, 2005년 4월에는 기후변화협약과 관련된 교토의정서를, 2016년 8월에는 파리기후협정에도 가입함
- 최근 북한은 세계적 범위에서 확대·발전하고 있는 탄소무역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관련 분야에 적극 진출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문춘광은 북한은 “앞으로 세계적 범위에서 탄소무역이 더욱 확대발전 하는데 따라 국제탄소무역시장에 대한 연구는 더욱 심화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는 가운데, 북한이 “국제탄소 무역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함³⁶⁾
- 북한은 기후변화와 더불어 최근 생태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북한은 2019년 6월 5

33) “Trends in Maternal Mortality 2000 to 2017,” Produced by the WHO, UNICEF, UNFPA, World Bank Group and the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https://www.unfpa.org/sites/default/files/pub-pdf/Maternal_mortality_report.pdf.

34) “2020 Global Nutrition Report: Action on equality to end malnutrition,” Produced by Development Initiatives Poverty Research Ltd. https://dylbw5db8047o.cloudfront.net/uploads/2020_global_nutrition_report.pdf.

35) “기후변화가 몰아오는 심각한 위기,” 『로동신문』 2019년 5월 5일.

36) 문춘광, “국제탄소무역시장과 그 진출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 경제학)』 제65권 제2호, (2019), p. 93.

일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제목의 로동신문 사설에서 "환경보호사업이 유엔이 제시한 지속개발목표와도 연관되어있는것으로 하여 앞으로 유엔환경계획활동뿐 아니라 다른 국제구들의 활동에도 적극 반영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는 가운데, 북한 역시 생태환경을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³⁷⁾

» 석탄과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와 같은 전 지구적 문제에서 북한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이러한 분야에 대한 북한의 관심은 매우 높음

- 이에 최근 북한은 수력, 태양열, 지열, 풍력 등 자연에너지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북한은 2019년 10월 21일 '적극화되는 자연에너지개발리용'이라는 제목의 로동신문 사설에서 "깨끗한 에너지자원들을 적극 개발하여 사람과 자연환경에 더는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늘어나는 에너지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는 지속적인 에너지개발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인류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오늘날 에너지문제해결에서는 밝은 전망이 열리게 되었다"고 말한 바 있음³⁸⁾

- 또한 북한은 '인류의 지향에 부합되는 자연에너지개발'이라는 제목의 로동신문 사설에서 "자연에너지개발은 인류의 생존, 미래와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모든 나라가 달라붙어 야 할 문제"라는 강조함³⁹⁾

- 북한은 자연에너지를 적극 이용하기 위한 기술적 혁신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오고 있음

- 북한은 2019년 2월 2일 '자연에너지를 적극 개발리용하자'라는 제목의 로동신문 사설에서 "지난 몇 해 사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에너지를 개발리용하기 위한 사업에서 근본적인 혁신이 이룩되"었고, "인민군군인들과 국가과학원 과학자들의 투쟁에 의하여 첫 자연에너지발전소가 훌륭하게 일떠섰으며 김일성종합대학과 국가과학원, 김책공업대학 그리고 목란광명회사를 비롯한 여러 단위에서는 태양에너지기와 풍력, 지열, 생물에너지개발리용을 위한 가치 있는 연구성과들을 내놓고 그뿐한 물질기술적토대도 갖추었"으며, "자체의 노력으로 생산과 경영활동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자연에너지기의 덕을 단단히 보고있는 단위와 가정"이 많다는 점을 강조함⁴⁰⁾

- 자연에너지 개발과 더불어 북한은 최근 재자원화 문제에도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재자원화 문제는 자연에너지 개발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인류의 생존과 사회경제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관심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사안에 북한 역시 많은 관심이 있다는 점을 강조함

- 북한은 자연에너지 개발과 재자원화 문제와 관련하여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인간의 생존에도 긍정적인 조건을

37)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로동신문』 2019년 6월 5일.

38) "적극화되는 자연에너지개발리용," 『로동신문』 2019년 10월 21일.

39) "인류의 지향에 부합되는 자연에너지개발," 『로동신문』 2019년 3월 6일.

40) "자연에너지를 적극 개발리용하자," 『로동신문』 2019년 2월 2일.

지어주는 친환경적인 사업”이라고 말하면서, 이를 위한 국제적 연대에 동참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음⁴¹⁾

» 최근 북한의 자연에너지 개발이용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녹색경제발전으로 이어지게 됨

- 북한은 세계적인 녹색경제발전에 대한 움직임을 소개하면서, 자신들 역시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음

- 북한은 2018년 12월 3일 ‘확대발전하고있는 녹색경제’라는 제목의 로동신문 사설에서 “녹색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그 실현에 힘을 집중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하면서, “녹색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세계적 추세로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인류가 살고있는 지구와 그 환경을 보호하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녹색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세계 여러 나라의 노력은 앞으로 보다 적극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⁴²⁾

» 이상에서 볼 때, 남북 그린데탕트 협력 구상의 토대가 되는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대응 역량 강화에 관한 북한의 관심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음

41) “인류의 생존과 사회경제발전에 매우 유익한 재자원화,” 『로동신문』 2020년 3월 17일.

42) “확대발전하고있는 녹색경제,” 『로동신문』 2018년 12월 3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관점에서 본 그린데탕트 협력 구상:
추진 여건과 법·제도적 과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북한

ISSUE PAPER

통일법제 이슈페이퍼

III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북한

1.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 현재 북한은 국제사회가 경제, 사회,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지향하기 위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기본 철학을 공유하고 있음⁴³⁾

- 2015년에 종료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승계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 종식을 위해 경제, 사회, 환경 등 광범위한 목표 설정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포용적인 제도 구축, 평화,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에 주안점을 둠⁴⁴⁾

-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하여, 북한은 “2030년 지속개발목표를 달성하는 데서 평화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모든 유엔 성원국들에 있어서 필수적인 문제로 제기”된다고 말하면서,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려 2030년 지속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⁴⁵⁾

- 특히 북한은 “환경을 개조리용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행동을 조절통제함으로써 세계적인 난문제로 등장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을 보호하려는 인류의 노력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⁴⁶⁾

» 북한은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위한 자신들의 국가목표에도 부합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 지지를 표명

- 2016년 4월 21일 당시 리수용 외무상은 유엔본부에서 한 연설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가 북한의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정책에 부합한다고 말한 바 있음. 리수용 외무상의 연설내용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그는(리수용 외무상) 지속개발의정은 전 세계적 범위에서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을 없애고 인간의 존엄과 창조적 능력을 마음껏 발양하며 우리 세대뿐 아니라 후대들의 유족한 생활을 담보하는 세계를 건설할 것을 공약한 인류공동의 행동강령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지속개발의정에 제시된 목표들

43) 최규빈,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북한연구학회보』 제24권 제1호, (2020), p. 102.

44) United Nations.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New York: United Nations, 2015).

45) “우리 나라 대표단 단장 유엔총회 제74차회의 전원회의에서 연설,” 『로동신문』 2019년 10월 3일.

46) 장대국, “부르조아환경윤리학의 비과학성과 반동성,”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 경제학)』 제64권 제1호, (2018), p. 57.

이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정책에 부합된다고 보고 이미 지지를 표명하였다.”⁴⁷⁾

- 많은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들은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북한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음. 대표적으로 손혁상은 ‘김정은은 빈곤종식, 기아종식에서 더 나아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발전을 이루는 사회, 즉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제대로 구현된 사회를 오늘의 북한이 지향하는 유토피아’라고 평가한 바 있음⁴⁸⁾

» 북한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지지하고, 이를 토대로 국제사회와의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유엔북한팀과 북한이 채택한 ‘유엔전략계획 2017-2021(Strateg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Democratic People’s-Republic of Korea 2017-2021)’임

- 동 계획의 핵심은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인간개발(sustainable and resilient human development)”에 있음
- 동 계획은 인간중심이라는 원칙과 인간개발의 촉진을 목표로 하며, 이는 지속가능발전목표 16번 목표인 “정의롭고,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구현”과 인식의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음
- 동 계획은 국제적인 보편성과 북한의 지역적 특수성이 결합된 합의이며, 이에 포괄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음
- 동 계획에서 제시된 북한에서 유엔의 역할과 전략 우선순위 및 성과목표를 도식화해보면 다음의 <표 3>, <표 4>, <표 5>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표 3> 북한에서 유엔의 역할

지역과 국제사회를 연결: 북한에서 유엔의 역할	
관계 형성과 국가역량 구축	지식 전달 / 정책 대화
합동 상황 분석과 정책 대화	
국제적 가치와 표준 장려	
국제적, 지역적 공리 증진	자원 전달 / 사업 실행
국가 발전을 위한 우선순위 선정	
즉각적인 인도적 필요에 대한 대응	

◆ United Nations 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역, “UN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의 협력을 위한 유엔전략계획 2017-2021,” 유엔북한팀(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번역본), 2016, p. 12.

47) “우리 나라 외무상 유엔본부에서 열린 지속개발목표달성에 관한 고위급토론에서 연설,” 『로동신문』 2016년 4월 23일.

48) 손혁상, “지속가능발전 담론,” 박지연·손혁상 외, 『북한개발협력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서울: 오름, 2020), p. 22.

<표 4> 전략 우선순위 및 성과목표

우선순위	세부내용
식량 및 영양안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 원예, 어업, 축산 분야에서 식량 생산, 생산성, 가공의 지속가능성을 높임 모든 가계가 언제든지 충분하고 다양한 식품군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여 북한의 가장 취약한 인구집단들의 삶의 질 제고 가임기 여성, 5세 미만 아동, 노인 등을 포함한 기타 취약계층의 영양상태 개선
사회개발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의 가장 취약한 인구집단들과 외딴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일차의료의 개선과 공평하고 일관되며 보편적인 보건 의료 서비스의 보장 전염성 질환과 비전염성 질환에 가장 취약한 아동과 여성들이 겪는 모성 및 유아 질환에 대한 향상된 의료 서비스 제공 보건 부문의 긴급 상황에 대비한 준비와 대응 역량 강화 가정, 교육기관, 의료시설 중에서 가장 취약한 가구와 인구집단들에 대한 공평하고 적절하며 지속가능한 물과 위생시설 보급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3차 교육기관, 그리고 직업 교육·훈련, 기술 부문에서 양질의 교육 제공과 형평성 제고
복원력과 지속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과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으로부터 지역 공동체, 특히 여성을 비롯한 가장 취약한 인구집단의 보호와 대응력 제고 지역 공동체, 무엇보다 가장 취약한 인구집단들에 대한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현대적 에너지원 접근성 제고 에너지, 기후변화, 환경관리, 재난위험관리 분야에서 정부 기관들의 통합적이며 공평한 사업 수행
데이터와 개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기획과 의사결정을 위한 구체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인도·개발분야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국제적 기술표준을 적용하기 위해 북한의 국가역량 강화 국제 협약, 조약, 기타 규범에 대한 북한의 준수 강화와 증거에 기반한 보고 체계 강화

◇ United Nations 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역, “UN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의 협력을 위한 유엔전략계획 2017-2021,” 유엔북한팀(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번역본), 2016, p. 26.

<표 5>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목표가 적용된 전략 우선순위

우선순위	세부내용
식량 및 영양안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표 2: 기아 종식과 식량 안보를 확보하고 영양상태를 개선하며 지속가능한 농업의 토대를 마련한다. 목표 9: 복원력 있는 인프라시설 마련과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계획하며 혁신을 장려한다.
사회개발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표 3: 모든 사람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을 증진시킨다. 목표 4: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모두를 위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마련한다. 목표 6: 모두를 위한 물·위생시설의 접근성 제고와 지속가능한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우선순위	세부내용
복원력과 지속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7: 모든 주민들을 위한 저렴하며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 목표 11: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복원력이 있는 지속가능한 거주지와 도시를 조성한다. •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을 체계화한다. • 목표 13: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행동을 실시한다. • 목표 15: 육상 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하며,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하고, 지속가능하게 산림을 관리하며, 사막화 방지와 토지의 황폐화를 막고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막는다.

◆ United Nations 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역, "UN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의 협력을 위한 유엔전략계획 2017-2021," 유엔북한팀(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번역본), 2016, pp. 15-20.

- 이상에서 살펴본, 동 계획은 북한개발협력과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을 연계하여 작성된 유엔과 북한 간의 협력 로드맵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인도적 지원보다는 개발협력의 성격이 강함
- 이러한 유엔과 북한 간의 협력 로드맵은 정부 차원보다는 주로 NGO, UNESCO, WTO, WFP 등의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수원국인 북한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함

» 북한이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이유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압박에 대응하는 성격도 있음

- 위에서 살펴본 2016년 4월 리수용 외무상이 유엔본부에서 북한이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같은 해 1월 6일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에 대해 미국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한 유엔의 대북제재에 대한 대응의 성격이 강함
- 북한은 2016년 9월 9일 제5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도 비슷한 행보를 보인 바 있음. 구체적으로 북한은 2016년 9월 9일 제5차 핵실험을 한 다음 달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관한 국제토론회를 평양에서 개최했으며, 당시 토론회에는 정영남 국토환경보호성 부상을 비롯한 농업성, 도시경영성, 국가관광총국 등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과 관련된 부문 일군들, 과학, 교육기관의 교원, 연구사들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 당시 북한은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관한 국제토론회가 "지속적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한 유익한 의견이 교환되고 폭넓은 지식을 체득하는 의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자평함⁴⁹⁾

» 북한은 대북제재 국면상황에서도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활동계획의 일환으로 국제기구 인사들의 북한방문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음

- 북한은 2017년 전국다지표조사결과발표회에 유엔아동기금 부집행국장 일행, 주조 유엔아동기금 대표를 비롯

49) "지속적발전에 관한 평양국제토론회 진행," 『조선중앙통신』 2016년 10월 7일.

한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과 여러 나라 대사관 성원들을 초청했으며, 이 발표회에서 “전국의 세대들과 어린이들, 녀성들의 생활조건과 보건, 교육, 영양, 위생시설 실태에 대한 다지표조사사업이 국제표준방법론에 따라 객관성과 시기성, 과학성을 보장하면서 진행”됐다고 말함

- 당시 북한은 2017년 전국다지표조사사업이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위한 공화국정부의 정책 작성과 국제적인 지속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계획을 실행하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⁵⁰⁾

» 북한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국가 정책방향과 연계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구해오고 있음

- 김정은은 2016년 5월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사회주의 경제강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실천방안으로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과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연결시키고자 했음



- 이와 관련하여, 당시 북한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목표를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경제부문 사이 균형을 보장하여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규정했음⁵¹⁾

- 북한은 2021년 6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UN High-Level Political Forum (HLPF)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현황을 담은 VNR 보고서를 제출함

- VNR 보고서에서 북한은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해 세부목표 95개와 132개 지표를 이행하고 있음을 밝혔음

- VNR 보고서에서 북한은 사회주의 강국건설이라는 국가목표, ‘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 그리고 글로벌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연계하는 자신들만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개발하고 이행해오고 있음을 밝혔는데, 이는 국제사회의 보편규범을 참고하여 국가발전계획을 추진해가고 있음을 의미함

<그림 4> 지속가능개발목표와 북한의 국가개발목표 간의 연계







SDGs	유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개발목표 1: 인민의 정부로서 책임성 강화와 인민대중제일주의 구현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모든 인민의 지식노동자화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주체사상과 과학기반 국가 경제 수립 및 인프라 현대화

50) “2017년 전국다지표조사결과발표회 진행,” 『로동신문』 2018년 6월 21일.

51)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한 당중앙위원회 사업 총화보고,” 『로동신문』 2016년 5월 8일.

SDGs	유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효과적·책임감 있는 포용적인 제도 구축	사회주의 체제강화
국가개발목표 2: 과학과 교육을 통한 모든 개발목표 이행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모든 인민의 지식노동자화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권익신장	성평등 및 모든 여성·여아의 권한 강화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주체사상과 과학기반 국가 경제 수립 및 인프라 현대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의 보장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해안과 바다, 수산 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활용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활성화	우호 증진 및 파트너십 구축
국가개발목표 3: 자력갱생과 지식기반 경제 구축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인민생활 향상
	기아 종식, 식량 안보와 개선된 영양상태의 달성, 지속 가능한 농업 강화	농업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식량 자급자족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복지증진	모든 인민의 건강 보장과 삶의 질 개선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모든 인민의 지식노동자화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물과 위생의 지속가능한 사용 및 관리 보장

SDGs	유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정한 가격에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현대식 에너지의 접근 보장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	지식기반 자력갱생 경제 구축, 전 인민대중 직업 보장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주체사상과 과학 기반 국가 경제 수립 및 인프라 현대화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국가 주체로서 인민대중의 권리 및 역할 보장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풍요롭고 문명화된 삶을 위한 생활 조건 및 환경 보장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의 보장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기후변화 그리고 그 영향과의 투쟁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해안과 바다, 수산 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활용
	육상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보호·복원·증진, 숲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등	숲, 토지 황폐화 되돌리기, 생물다양성 유지의 지속적인 관리
국가개발목표 4: 완전한 사회주의 문화 구축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인민생활 향상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복지증진	모든 인민의 건강 보장과 삶의 질 개선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모든 인민의 지식노동자화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주체사상과 과학기반 국가 경제 수립 및 인프라 현대화

SDGs	유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기후변화 그리고 그 영향과의 투쟁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해안과 바다, 수산 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활용
모든 국가개발목표와 연계되는 공통의 목표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모든 인민의 지식노동자화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권익신장	성평등 및 모든 여성·여아의 권한 강화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주체사상과 과학기반 국가 경제 수립 및 인프라 현대화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활성화	우호 증진 및 파트너십 구축

◇ DPRK 저, 김규동 외 역,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 이행에 관한 자발적 국가 검토 보고서,” (2021), pp. 8-10.

- 북한은 VNR 보고서에서 에너지, 농업, 물·위생과 환경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명시함

- 특히 동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자연·환경재난 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자신들이 자연·환경 재난에 매우 취약하다고 말함⁵²⁾

» 이상에서 볼 때, 북한은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자국의 국가 발전전략과 부합한다고 인식하여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밝히고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이행해오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52)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할 예정

2. 북한 환경분야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추진을 위한 과제

» 북한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포함한 유엔개발의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나름대로 성실히 이행해오고 있음

- 사실 북한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체제유지에 큰 영향이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엔차원의 대북 인권개선 요구를 수용해오고 있음

- 북한이 유엔차원의 대북 인권개선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하고 있다는 점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대표적으로 2016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전문에는 “북한이 장애인권리협약, 아동매매·아동매춘 및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서명”한 것과 “북한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와 함께 자국의 보건증진과 유엔 아동기금(UNICEF)과 함께 아이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협력한 것”에 대해 감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⁵³⁾

- 북한은 유엔개발의제를 매개로 국제사회와의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북한에 상주하고 있는 유엔북한팀과 북한 정부가 합의한 ‘유엔전략계획 2011-2015’와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음⁵⁴⁾

» 북한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한계도 존재하는데, 이 점은 북한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공간 문헌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 첫째,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주요 목표와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용하고 이에 대해 북한도 적극적으로 이행을 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며, 이 점에서는 북한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 둘째, 북한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국가전략과 인민생활 향상의 측면에서 적극 활용하는 경향이 강함. 특히 북한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자신들이 취하고 있는 다양한 조치들과의 정합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들의 추진하는 국가전략의 지향점을 정당화하는 데 활용하고 있음

- 셋째,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빈곤종식, 기아해소, 지속가능농업, 건강과 웰빙 등의 문제와 북한의 관련 제도들과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함

- 넷째, 국제사회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포함한 유엔개발의제를 구실로 북한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 불편한 속내

53)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A/RES/71/202).” (19 December, 2016).

54) 최규빈,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북한연구학회보』 제24권 제1호, (2020), pp. 99-100.

를 드러내고 있음. 북한은 한편으로는 유엔 관계자의 북한방문 사실을 긍정적으로 보도해오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엔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가지고 북한을 압박하자, 이에 대해 유엔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표현 등을 활용해서 비판하는 경향이 강함

» 이상에서 볼 때,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인식과 참여 의지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사회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구실로 북한을 압박하려고 한다면 북한은 이에 대해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음

- 2019년 10월 북한 대표단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평화로운 환경조성을 제기⁵⁵⁾

- 북한이 제시한 평화선결 조건은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기반하여 그린데탕트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라는 현실적 한계와 더불어 유념해야 하는 제약조건이라고 할 수 있음

55) “77개집단 상회의 진행, 판문점선언과 조미공동성명의 성실한 리행을 호소하는 선언 채택,” 『로동신문』 2018년 9월 29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관점에서 본 그린데탕트 협력 구상:
추진 여건과 법·제도적 과제

IV

북한의 지속가능한 환경·재난 대응 현황과 역량

ISSUE PAPER

통일법제 이슈페이퍼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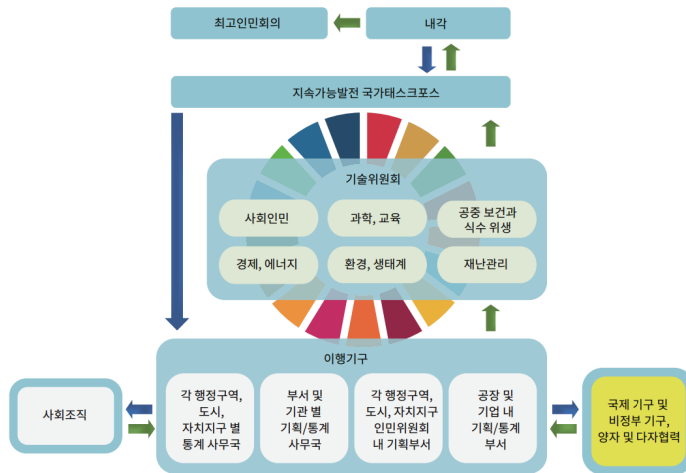
북한의 지속가능한 환경·재난 대응 현황과 역량⁵⁶⁾

1. 북한의 지속가능한 환경·재난 대응의 현황

» 북한이 지속가능한 환경·재난 대응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경제, 사회, 그리고 환경 영역의 균형잡힌 개발이 필요함

- 지속가능한 환경·재난 대응 역량을 갖추기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일환으로 2018년 8월 지속가능발전 국가태스크포스를 조직했으며, 이 태스크포스를 토대로 국가지속가능발전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그림 5> 국가지속가능발전체계



◇ DPRK 저, 김규동 외 역,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 이행에 관한 자발적 국가 검토 보고서),” (2021), p. 12.

56) 북한의 환경·재난 대응 현황과 역량에 관한 내용은 VNR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DPRK 저, 김규동 외 역,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 이행에 관한 자발적 국가 검토 보고서),” (2021).

- 위의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지속가능발전 국가태스크포스는 '북한자체의 SDGs(이하 우리식 SDGs)'와 이에 대한 세부목표, 그리고 성과지표를 확정하고 업데이트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다수의 관계부처 및 인민위원회와 협의하에 전국적인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상황을 점검, 감독, 조정할 권한을 갖고 있음
- » VNR 보고서를 토대로 북한의 환경·재난 대응의 측면에서 보면, 북한은 나름대로 기후변화 대응, 해양자원 보호, 숲·토지 황폐화 되돌리기 및 생물다양성 유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 분야의 성과는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임
 - VNR 보고서에서 북한은 연이은 기후 관련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고, 극심한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 생산량 감소, 농업 기반 파괴, 토지와 물 자원의 저하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함
 -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2019-2030 국가재난위험경감정책(NDRRS)을 시행하여 전국적인 재해관리를 체계화하고 인민 인식 개선과 재료 공급 능력 강화를 통해 재난 위험 최소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완수를 목표로 하고 있음
 -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북한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파리협정을 충실히 이행해오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16년 1차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2030년까지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변경된 계획을 수립·이행할 계획을 갖고 있음
 - 해양자원 보호와 관련하여, 북한은 해저와 해안의 생태계와 바다 산성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보호해야 하는 도전이 앞에 놓여 있다고 말함
 - 북한은 해양자원 오염 방지와 관련된 환경효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하고, 폐수 방류와 물 환경에 대한 기준이 업데이트되어야 하고, 오염방지를 위한 실제적인 계획, 관리 방법과 정화시설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함
 - 해저와 수상 자원의 보호와 양식을 위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해안 환경을 관측하고 평가하는 관측시설 설치와 데이터 수집, 분석, 조정을 위한 능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함
 - 산림자원 보호와 관련하여, 북한은 자연서식지의 황폐화 감소와 생물다양성 상실의 중단, 그리고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보전이라는 도전이 남아있다고 말함
 - 북한은 산림보호를 위해 2024년까지 약 140만ha를 조림화해 대부분의 산을 녹화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이를 통해 매년 1,000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능력을 새롭게 창출할 것임을 밝힘
 - 산림보호와 관리를 위해 북한은 하이테크 연구와 지식 보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고 말함

2. 북한의 지속가능한 환경·재난 대응을 위한 역량

» 지속가능한 환경·재난 대응을 위해 데이터와 개발 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음

- 유엔북한팀과 북한외무성이 채택한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은 북한 정부와 유엔 양자의 협력사업 전반에 적용해야 하는 7가지 사업기획 원칙과 고려사항을 제시했는데, 그 7가지에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제도적 지속가능성’이 포함되어 있음
- 동 계획의 4대 전략 우선순위에는 ‘데이터와 개발 관리’가 포함되어 있고, 세부내용으로 국제적 기술표준을 적용하기 위해 북한의 국가역량 강화가 있음
- 이는 북한도 지속가능한 환경·재난 대응을 위해서는 사업 기획과 의사결정을 위한 구체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인도·개발분야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함

» 북한은 효과적인 환경·재난 대응을 위해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과 인증체계수립에도 많은 관심을 두고 있음

- VNR 보고서에 제시된 북한의 주요 분야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해 현황 및 성과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환경·재난 대응과 관련된 지속가능발전목표 13, 14, 15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북한은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자신들이 수립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환경·재난 대응을 위해 관측, 평가, 측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데이터 수집과 분석, 조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북한은 환경·재난 대응을 위한 인증체계수립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최근 북한은 산림과학기술 보급의 일환으로 국가산림인증체계수립에 나서고 있음
- 국가산림인증체계와 관련하여, 조웅주 교수는 “국가산림인증체계는 국가의 통일적 지도 밑에서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산림인증권을 부여받은 국가기관들이 산림인증을 위한 평가지표와 기준들을 설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해당 산림이 설정된 기준에 부합되게 관리되고 있는가를 심의하고 증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와 질서”라고 말함
- 조웅주 교수는 동 인증체계를 수립하는 목적은 “산림생태계의 생산력 유지와 관련된 지표와 기준의 목적은 산림을 계획적으로 리용하여 산림의 생산력을 부단히 높이며 다른 한편 효과적인 리용을 통하여 생산력의 지속성(자자 강조)을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옹계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는 “산림보호와 지속적 산림관리를 위한 정책적, 경제적, 법적, 제도적 수단들은 산림생태계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평가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함⁵⁷⁾

57) 조웅주, “국가산림인증체계수립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 경제학)』 제68권 제2호, (2022), pp. 33-35.

» 북한은 지속가능한 환경·재난 대응과 국제사회와의 협력 확대를 위한 교두보로서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오고 있음

- 집권 초부터 김정은은 여러 경제현장을 현지지도하면서 ‘세계적 추세’라는 표현을 자주 언급했는데,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경제현장에서 ‘세계적 추세’를 언급하는 것은 국제적 기준을 사회적 지향점으로 삼고 다른 나라와 적극적으로 교류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음⁵⁸⁾
- 2012년부터 김정은은 기업소와 발전소의 일군들로 하여금 선진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와 관련하여 2012년 6월 24일자 로동신문 사설에는 북한이 “전력생산에 여러 가지 선진기술을 받아들이는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 같은 조건에서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을 소개한 바 있음⁵⁹⁾
- 최근 북한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재난 대응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해 녹색경제와 녹색도시건설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로동신문에 수록된 녹색경제와 녹색도시건설 관련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북한이 기후변화 대응, 생태계 문제, 환경문제를 인류의 생존과 미래와 관련된 사안으로 인식하고, 이 분야에서 대외협력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녹색경제와 재자원화 문제에 대한 북한의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⁶⁰⁾
- 이렇듯 현재 북한이 녹색경제와 녹색도시건설과 같은 아이템에 관심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그린데탕트 협력 구상을 보다 체계화하는데 녹색경제와 녹색도시건설과의 연계성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의미함

58) “세계적 추세” 부쩍 강조하는 北김정은, 『연합뉴스』 2012년 7월 8일.

59)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동평양화력발전소에서, 『로동신문』 2012년 6월 24일.

60) “확대발전하고 있는 록색경제, 『로동신문』 2018년 12월 3일; “세계적추세로 되고있는 록색도시건설, 『로동신문』 2019년 11월 3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관점에서 본 그린데탕트 협력 구상:
추진 여건과 법·제도적 과제



남북 그린데탕트 협력 구상의 추진전략과 법·제도적 과제

ISSUE PAPER

통일법제 이슈페이퍼

V

남북 그린데탕트 협력 구상의 추진전략과 법·제도적 과제

1. 남북 그린데탕트 협력 구상의 추진전략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환경분야 국제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해왔음

- 유엔은 지속적으로 핵·미사일 문제와 북한의 약한 고리인 인권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다양한 차원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갈등과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협력의 손을 내밀고 있음
- 북한 역시 유엔에 가입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유엔이 제시한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며 보편적 가치를 수용하고 있고, 이를 국가발전전략과 연계시키고 있음⁶¹⁾
- 북한 내부적으로도 환경·재난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에 큰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VNR 보고서에서 자신들의 이행성과와 한계를 밝혔음
- 북한은 2018년 ‘람사르협약(Ramsar Convention)’과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Partnership, EAAFP)’에 가입하는 등 국제 환경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오고 있음⁶²⁾
- 미중 전략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등의 복잡한 국내외 문제를 고려한다면, 북한과의 환경협력은 국제기구를 포함한 다자간 국제협력을 통해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함⁶³⁾

» 그린데탕트 협력은 북한이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과 목표달성을 위해 다자협력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음

61) 권을 외,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성과와 남북협력과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21, No. 17, (2021), p. 24.

62) 한상운, 『북한 환경법제 입법동향 및 DB구축(I)』. (세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pp. 58-62.

63) 최현아, “김정은 시대 환경관련 활동과 협력 방안: 습지 생물다양성 보전 대내외 활동변화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28권 2호, (2019), p. 75.

- 북한은 하노이 노딜 이후 한편으로 우리와의 모든 접촉을 끊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VNR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관계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북한의 수용성을 고려한다면, 단기적으로 북한과의 환경분야 협력은 유엔 및 유엔 산하 기구, NGO 등 국제사회가 이니셔티브를 취하고, 한국이 이에 협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⁶⁴⁾
 -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환경 개발을 위해 남북이 유엔 산하 기구들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후변화, 환경·재난 대응, 해양 및 토양생태계 등의 분야별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 시점에는 남북협력을 보완한 다자방식의 협력 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⁶⁵⁾
- » 그린데탕트 협력 구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향후 대북제재의 (부분적) 해제 상황을 고려한 단계별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음
- 북한은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상황에도 『국가재해위험감축전략보고서(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isk Reduction)』와 VNR 보고서를 국제사회에 2019년과 2021년 각각 제출한 바 있음
 - 이들 보고서에서 북한은 환경·재난 대응의 상황과 관리 역량의 한계를 일정 수준 공개해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음
 - 환경·재난 대응과 관련된 그린데탕트 분야는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로 여타 분야와 달리 유연하게 제재 면제 혹은 예외를 받을 수 있음
 - 이에 단기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유연한 대북한 관여(제재 면제 혹은 유예)를 통해 북한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음⁶⁶⁾
 - 중장기적으로 대북제재의 부분적 해제와 제재가 없는 상황을 고려한 환경·재난 대응 관련 그린데탕트 협력 구상을 세울 필요가 있음
 - 북한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가능성 환경·재난 협력을 위해 다자 및 양자협력과 작은 단위(도 단위, 군 단위 등) 협력 구상도 세울 필요가 있음⁶⁷⁾
- » 그린데탕트 협력 구상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추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64) 강택구 외, 『북한 자연재해 자료 구축과 협력 전략』, (세종: 한국환경연구원, 2021), p. 70.

65) 권율 외,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성과와 남북협력과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21, No. 17, (2021), p. 25.

66) 나용우, “남북 그린데탕트’를 통한 지속가능한 평화,” 『Online Series』 CO22-18, (2022), pp. 3-4.

67) 최현아, “김정은 시대 환경관련 활동과 협력 방안: 습지 생물다양성 보전 대내외 활동변화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28권 2호, (2019), pp. 75-77.

- 그린데탕트 협력 구상은 경제적 편익뿐만 아니라 사회적·환경적 효과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효과가 일방에 집중되는 것이 아닌 남북이 상생할 수 있어야 함
- 특히 초기 단계에는 북한의 협력수요가 높은 초국경 질병예방 및 방역, 자연재난 공동대응 마련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산불방지 공동대응, 양묘장 현대화 등 산림협력 강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⁶⁸⁾
- 산림병해충 방제사업과 양묘장 현대화 사업 등 기존의 남북 간 협력 경험이 있고, 특히 2018년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의 핵심 의제였다는 점에서, 북한의 협력수요가 높음

<그림 6> 산림·농업분야 남북교류협력 사례



남북강원도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사업



경기도 개성시 개풍군 양묘장 조성사업 지원

◇ 소성규 외, 『양주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전략 및 발전방안 연구 용역』, (포천: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 2020), p. 40, 53.

- 최근 북한은 대북제재로 인해 식량문제가 많은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농사에 필요한 선진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한 출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⁶⁹⁾
- 북한이 식량문제 해결과 농업생산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양묘장 현대화 사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린데탕트 협력의 초기 단계의 구체적인 아이템으로 남북 간 양묘장 현대화 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68) 이해정·강성현,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을 위한 실천 과제,” 『현안과 과제』 22-04, (2022), pp. 8-10.

69) “농사는 사람이 짓고 과학이 짓는다,” 『로동신문』 2020년 1월 23일; “선진과학농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움직임,” 『로동신문』 2020년 1월 29일.

<그림 7> 김정은의 련포남새은실농장과 양묘장 현지지도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련포남새은실농장 건설예정지를 현지에서 료해하시었다,” 『로동신문』 2020년 1월 28일.

- 그린데탕트 협력 구상 전개 초기, DMZ의 산림복원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남북 공동 실태조사 실시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추진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⁷⁰⁾
- 2019년 한탄강 유역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됐으며, 2020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사무국은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을 북한 지역까지 확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⁷¹⁾
- 이런 맥락에서 접경지역에서 환경, 생태, 관광을 연계해 남북 간 공유이익을 확대하는 그린평화지대화 추진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남북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남북 간에 그린데탕트 구현을 위한 다양한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⁷²⁾

» 이상에서 살펴본 윤석열 정부가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제시한 그린데탕트 협력 구상은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환경·재난 대응과 관련된 북한의 적극적인 태도를 고려한 평화전략이자, ‘환경-개발-평화’의 연결을 통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환경협력 로드맵이라고 볼 수 있음

- 다만 그린데탕트 협력 구상의 추진을 위해서는 대북제재 상황과 환경·재해 재난 대응과 관련된 북한의 대내외적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별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자 및 양자협력 방안과 지자체 단위 협력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70) 이해정·강성현,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을 위한 실천 과제,” 『현안과 과제』 22-04, (2022), pp. 10-11.

71) 전호성 외, “남북한 한탄강 초국경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화를 위한 제언,” 『지질학회지』 제57권 제5호, (2021), p. 709.

72) 이해정·강성현,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을 위한 실천 과제,” 『현안과 과제』 22-04, (2022), pp. 10-11; 나용우, “남북 그린데탕트를 통한 지속가능한 평화,” 『Online Series』 CO22-18, (2022), pp. 4-5.

2. 남북 그린데탕트 협력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 남북 그린데탕트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직, 제도, 재원 등의 제도적 추진기반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 기존의 인도적 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인도적 지원사업이 개발협력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2016년 12월 15일 “남북한 간의 인도적 지원과 협력사업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북한 주민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돕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한 간의 인도지원과 개발협력에 관한 법률안」과 같은 법안이 제정될 필요가 있음
- 동 법률안은 임기만으로 폐기됐지만, 동 법안 제2조와 제8조에는 “인도·협력사업”과 관련된 내용에 산림복구 및 환경보전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음⁷³⁾
- 그린데탕트 전략 추진에 필요한 자원마련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국제기구기금 및 관련 ODA 자금, 민간자금을 활용하여 “(가칭) 한반도 「그린데탕트」 기금” 또는 “(가칭) 한반도 환경공동체 기금”을 조성, 운영할 필요가 있음⁷⁴⁾
- 남북(교류)협력을 관장하는 법률에 환경협력에 관한 법적 근거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기금의 용도) 제2항 문화·학술·체육 분야에 ‘인도주의 협력’을 추가로 병기할 필요가 있고,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에서 정의하고 있는 “경제분야 협력”에 남북 간 환경분야 협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음
- 국제법 기반의 남북 그린공동체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여, 그린데탕트 추진을 위한 국제적 동력 확보와 북한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으로 2017년 4월 제71차 유엔총회에서 산림과 관련하여 유엔이 공유하는 목표와 미션을 담아 채택한 ‘유엔산림전략계획 2017-2030(United Nations Strategic Plan for Forests 2017-2030)’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산림기본법」과 북한의 「산림법」을 포괄하는 「(가칭) 한반도 산림법」을 제정하고 관련 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⁷⁵⁾

73) 이인영 외, “남북한 간의 인도지원과 개발협력에 관한 법률안(이인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4400),” 발의연월일: 2016년 12월 15일.

74) 추장민 외, 『한반도 「그린 데탕트」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3), p. 85.

75) 강현수, “보편적 가치를 원칙으로 평화와 공동번영을 선도하는 ‘한반도 그린공동체,’” 『KRIHS POLICY BRIEF』 No. 895, (2022), p. 5;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Strategic Plan for Forests 2017-2030,” (20 April, 2017). https://www.un.org/esa/forests/wp-content/uploads/2016/12/UNSPF_AdvUnedited.pdf.

- 정책적으로는 그린데탕트 협력과 식량, 물, 에너지 분야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는 산림은 지속가능발전목표 SDG15뿐만 아니라 식량안보(SDG2), 물(SDG6), 에너지(SDG7), 일자리(SDG8), 기후변화(SDG13) 등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이를 유엔 차원에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기 때문임⁷⁶⁾

» 이상에서 살펴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그린데탕트 협력 추진에 필요한 조직, 제도, 자원 등과 같은 추진기반이 구축될 수 있으며, 국제사회와 북한으로부터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음

76) 최은호, “제13차 유엔산림포럼(UNFF)의 결과 및 시사점,” 『NIFoS 국제산림정책토크』 제68호, (2018), p. 9.

참고문헌

[북한문헌]

- 김정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우리민족끼리』 2012년 4월 6일.
- 김정은, “2013년 신년사,” 『로동신문』 2013년 1월 1일.
- 리 혁, “과학자, 기술자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할데 대한 사상의 본질,”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 경제학)』 제64권 제3호, 2018.
- 문춘광, “국제탄소무역시장과 그 진출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 경제학)』 제65권 제2호, 2019.
- 장대국, “부르조아환경윤리학의 비과학성과 반동성,”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 경제학)』 제64권 제1호, 2018.
- 조웅주, “국가산림인증체계수립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 경제학)』 제68권 제2호, 2022.
- 한은경, “문명강국의 징표,” 『김일성종합대학(철학, 경제학)』 제64권 제1호, 2018.
-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스러운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로동신문』 2012년 1월 1일.
-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동평양화력발전소에서,” 『로동신문』 2012년 6월 24일.
- “우리의 사회과학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로동신문』 2012년 12월 2일.
- “우리 나라 외무상 유엔본부에서 열린 지속개발목표달성에 관한 고위급토론에서 연설,” 『로동신문』 2016년 4월 23일.
-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한 당중앙위원회 사업 총화보고,” 『로동신문』 2016년 5월 8일.
- “지속적발전에 관한 평양국제토론회 진행,” 『조선중앙통신』 2016년 10월 7일.
- “2017년 전국다지표조사결과발표회 진행,” 『로동신문』 2018년 6월 21일.
- “77개집단 상회의의 진행, 판문점선언과 조미공동성명의 성실한 리행을 호소하는 선언 채택,” 『로동신문』 2018년 9월 29일.
- “자주통일시대의 전진을 추동하는 민족공동의 강령,” 『로동신문』 2018년 10월 23일.

- “확대발전하고있는 녹색경제,” 『로동신문』 2018년 12월 3일.
- “자연에너지를 적극 개발리용하자,” 『로동신문』 2019년 2월 2일.
- “인류의 지향에 부합되는 자연에너지개발,” 『로동신문』 2019년 3월 6일.
- “기후변화가 몰아오는 심각한 위기,” 『로동신문』 2019년 5월 5일.
-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로동신문』 2019년 6월 5일.
- “우리 나라 대표단 단장 유엔총회 제74차회의 전원회의에서 연설,” 『로동신문』 2019년 10월 3일.
- “적극화되는 자연에너지개발리용,” 『로동신문』 2019년 10월 21일.
- “세계적추세로 되고있는 녹색도시건설,” 『로동신문』 2019년 11월 3일.
- “농사는 사람이 짓고 과학이 짓는다,” 『로동신문』 2020년 1월 23일.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련포남새온실농장 건설예정지를 현지에서 료해하시였다,” 『로동신문』 2020년 1월 28일.
- “선진과학농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움직임,” 『로동신문』 2020년 1월 29일.
- “인류의 생존과 사회경제발전에 매우 유익한 재자원화,” 『로동신문』 2020년 3월 17일.
-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함경남도당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긴급소집할데 대하여 지시,” 『로동신문』 2021년 8월 8일.
- “주체조선의 진군을 막을 힘 세상에 없다,” 『로동신문』 2022년 11월 10일.
- “오늘은 식수절이다, 나무와 함께 당 정책을 심고 애국심을 심고 양심을 심자,” 『로동신문』 2023년 3월 14일.

[국내문헌]

- 강택구 외, 『북한 자연재해 자료 구축과 협력 전략』. 세종: 한국환경연구원, 2021.
- 강현수, “보편적 가치를 원칙으로 평화와 공동번영을 선도하는 ‘한반도 그린공동체,’” 『KRIHS POLICY BRIEF』 No. 895, 2022.
- 관계부처 합동,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2021년 10월 18일.
- 권율 외,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성과와 남북협력과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21, No. 17, 2021.
- 김재기·양용환, “남북한 산림 분야 교류 협력 성과와 협력 과제,” 『한국과 국제사회』 제 6권 1호, 2022.

- 김태경, “그린 데탕트: 환경협력을 통한 평화구축의 미래 탐색,” 『국제전략 Foresight』 9호, 2022.
- 대한민국정부,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 모춘홍, “북한개발협력의 핵심 논점과 정책적 함의: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을 중심으로,” 『법과정책연구』 21권 3호, 2021.
- 모춘홍, “북한의 ‘사회주의문명국 건설’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보건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문화와 정치』 제8권 제1호, 2021.
- 모춘홍, “김정은 시대 북한 ‘과학기술 중시 정책’과 남북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 『2020 STEPI Fellowhip』 2020.
- 모춘홍·정병화, “북한과의 공생, 그 (불)가능성: 식량문제와 보건의료 실태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제9권 제1호, 2019.
- 류지성·최현아, “남북 관계발전을 위한 그린 데탕트, 정책적·법적 협력 방향,” 『통일법제 이슈페이퍼』 Vol. 10, 2022.
- 소성규 외, 『양주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전략 및 발전방안 연구 용역』. 포천: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 2020.
- 손혁상, “지속가능발전 담론,” 박지연·손혁상 외, 『북한개발협력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서울: 오름, 2020.
- 이인영 외, “남북한 가의 인도지원과 개발협력에 관한 법률안(이인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4400),” 발의연월일: 2016년 12월 15일.
- 이혜정·강성현,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을 위한 실천 과제,” 『현안과 과제』 22-04, 2022.
- 전영선, “사회주의 미풍양속과 ‘준법기풍’을 통해 본 북한의 문화 검열,” 『통일인문학』 제84집, 2020.
- 전호성 외, “남북한 한탄강 초국경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화를 위한 제언,” 『지질학회지』 제57권 제5호, 2021.
- 최규빈,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북한연구학회보』 제24권 제1호, 2020.
- 최은호, “제13차 유엔산림포럼(UNFF)의 결과 및 시사점,” 『NIFoS 국제산림정책토크』 제68호, 2018.
- 최현아, “김정은 시대 환경관련 활동과 협력 방안: 습지 생물다양성 보전 대내외 활동변화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28권 2호, 2019.
- 추장민 외, 『한반도 「그린 데탕트」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3.

- 한상운, 『북한 환경법제 입법동향 및 DB구축(I)』, 세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 「남북협력기금법」.
-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 “‘세계적 추세’ 부쩍 강조하는 北김정은,” 『연합뉴스』 2012년 7월 8일.
- “황폐화된 북한 산림, 한국이 국제협력을 통해 복구 주도해야,” 『중앙일보』 2020년 10월 13일.
-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 공동보도문,”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남북합의서 공동보도문. 2018년 7월 4일.
- “9월 평양공동선언,”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남북합의서 공동보도문. 2018년 9월 19일.
-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 공동보도문(18.10.22), 개성,”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남북합의서 공동보도문. 2018년 10월 22일.

[해외문헌]

- DPRK 저, 김규동 외 역,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 이행에 관한 자발적 국가 검토 보고서,” 2021.
- GCF, “Readiness proposal with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FAO) for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3 December 2019. <https://www.greenclimate.fund/sites/default/files/document/readiness-proposals-democratic-republic-korea-fao-nda-strengthening-country-programming.pdf>.
-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A/RES/71/202).” 19 December, 2016.
- United Nations.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New York: United Nations, 2015.
- United Nations 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역, “Strateg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Democratic People’s-Republic of Korea 2017-2021(UN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의 협력을 위한 유엔전략계획 2017-2021),” 2016.
-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Strategic Plan for Forests 2017-2030,” (20 April, 2017). https://www.un.org/esa/forests/wp-content/uploads/2016/12/UNSPF_AdvUnedited.pdf.

- “Level & Trends in Child Mortality Report 2020,” Produced by the UN Inter-agency Group for Child Mortality Estimation. <https://www.unicef.org/media/79371/file/UN-IGME-child-mortality-report-2020.pdf>.
- “Trends in Maternal Mortality 2000 to 2017,” Produced by the WHO, UNICEF, UNFPA, World Bank Group and the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https://www.unfpa.org/sites/default/files/pub-pdf/Maternal_mortality_report.pdf.
- “World Health Statistics 2021: Monitoring Health for the SDGs,” Produced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https://apps.who.int/iris/bitstream/handle/10665/342703/9789240027053-eng.pdf?sequence=1&isAllowed=y>.
- “2019 DPR Korea: Needs and Priorities,” Produced by the Humanitarian Country Team and Partners. https://dprkorea.un.org/sites/default/files/2020-04/2020_DPRK_Needs_and-Priorities_Plan.pdf.
- “2020 Global Nutrition Report: Action on equality to end malnutrition,” Produced by Development Initiatives Poverty Research Ltd. https://dylbw5db8047o.cloudfront.net/uploads/2020_global_nutrition_report.pdf.
- Global Forest Watch. <https://www.globalforestwatch.org>.
- <https://www.globalhungerindex.org/north-korea.html>.



ISSUE PAPER

통일법제 이슈페이퍼

2023 VOL. 01



발행일 2023년 4월 28일

발행인 한영수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한국법제연구원

TEL (044) 861-0300

FAX (044) 868-9913

등록번호 1981. 8. 11. 제2014-000009호

ISBN 979-11-92875-48-4 (95360)

<http://www.klri.re.kr>

1. 본원의 승인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2. 이 책자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SUE PAPER

통일법제 이슈페이퍼

2023 VOL. 01

KLRI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TEL (044) 861-0410 FAX (044) 868-1947

